



윤석민

개막전 연패 사슬 끊어주마

KIA 2005년 이후 6연패... 윤석민 선발 출격
오늘 오후2시 광주서 삼성전, 'LCK포' 가동

기지를 켜 KIA 타이거즈 타선이 개막전 연패 끊기에 앞장선다. KIA 타이거즈가 2일 오후 2시 무등야구장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2011시즌의 스타트를 끊는다. 2007년 이후 4년 만에 안방에서 시즌을 열게 된 KIA는 윤석민을 필승카드로 삼성 차우찬 공략에 나선다. 모처럼 안방을 지키게 된 KIA는 개막전 연패 사슬 끊기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았다. 2005년 개막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이어져 패는 모두 6패. KIA가 초반 기선 제압을 V11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개막전 승리는 1승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경기의 향방은 이범호-김상현-최

희섭으로 구축된 'LCK포'의 파괴력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KIA는 더욱 탄탄해진 마운드 덕분에 겨우내 2011시즌 강력한 우승후보로 주목을 받았다. 그에 비해 타자들의 동반침체 속에 클린업트리오마저 흔들려 가동에 들어가는 등 '투고타저'의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범호-김상현이 시범경기 마지막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고, 부진했던 최희섭도 지난 30일 연습경기에서 홈런포 가동에 들어가는 등 잠재된 'LCK포'가 동시에 폭발하면서 감춰져있던 KIA의 화력이 개막전 향방을 가늠할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했다. 지난해 KIA는 3번 타자의 낙점 실패 속에 김상현의 무릎 부상까지 겹치면서 고전을 거듭했다. 하지만 KIA의 아킬레스건이었던 3번 자리에 이범호

가 빠르게 자리를 잡으면서 클린업트리오의 위력은 배가 될 전망이다. 유격수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현근과 김선빈도 시범경기에서 매서운 스윙을 과시하며 클린업트리오의 지원사격에 나서며 타선의 짜임새가 더해졌다. 개막에 맞춰 타자들의 타격감이 동반 상승하면서 타선의 자신감도 함께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여기에 안방에서 치르는 개막전의 힘도 선수들에게는 플러스 요인. 주장 김상훈은 "오랜만에 홈에 개막전이 열리면서 선수들이 안방에서 편하게 첫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타격감도 좋아진 것 같고 연습경기와 시범경기를 하면서 삼성의 차우찬-카도쿠라에 대한 대비도 했다. 좋은 승부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타선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그들



차우찬

안 타자들이 꼭 참고 있었다"는 부담이 나올 정도로 무거웠던 덕아웃 분위기도 한결 가벼워졌다. '마운드 왕국'으로 눈길을 끌었던 KIA가 공포의 타선으로 날개를 달 수 있을지 개막전 승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경기 일정표

월	일	상대팀	장소
4월	2-3	삼성	광주
	5-7	한화	대전
	8-10	두산	잠실
	12-14	넥센	광주
	15-17	한화	광주
	19-21	삼성	대구
5월	22-24	L G	잠실
	26-28	S K	광주
	29-5.1	롯데	광주
	3-5	넥센	목동
	6-8	S K	문학
	10-12	두산	광주
6월	13-15	롯데	사직
	17-19	L G	광주
	20-22	한화	광주
	24-26	넥센	목동
	27-29	롯데	광주
	31-6.2	L G	잠실
7월	3-5	S K	문학
	7-9	두산	광주
	10-12	L G	광주
	14-16	한화	대전
	17-19	삼성	광주
	21-23	S K	광주
8월	24-26	두산	잠실
	28-30	롯데	사직
	1-3	한화	광주
	5-7	넥센	광주
	8-10	L G	잠실
	12-14	두산	광주
9월	15-17	삼성	대구
	19-21	한화	대전
	26-28	삼성	광주
	29-31	넥센	광주
	1	두산	잠실
	2	삼성	광주
3	S K	광주	
4	한화	대전	
5	넥센	광주	
7	롯데	사직	

출범 30년째를 맞은 올 시즌 프로 야구는 8개 팀당 133경기, 총 532경기를 펼친 뒤 상위 4팀이 화려한 '가을 잔치'를 펼친다. 올 페넌트레이스의 최대 관심은 '디펜딩 챔피언' SK 와이번스의 독주를 과연 어느 팀이 막아내느냐. 지난 4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올라 세 번씩이나 우승컵을 차지한 SK는 그야말로 '공공의 적'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올 시즌 8개 구

단 전력 판도를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는 혼전 양상이 전개되면 '3강 3중 2약'의 판도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4년간 최강으로 군림했던 SK에서는 '팀 전력의 절반'이라는 베테랑 포수 박경완이 아킬레스건 수술 여파로 개막전에 출전하지 못한다. 지난해를 안면 마비 증세를 보였던 에이스 김광현은 마지막 시범 경기에서 불안감을 노출하며 제 컨

프로야구 30년... 올 시즌 판도는

KIA·SK·두산 3강 혼전

디션을 찾지 못했다. 겨울 동안 특별한 전력 보강이 없었던 SK는 '캡틴' 김재현이 은퇴했고 유격수 나주환

이 임대하는 바람에 오히려 전력이 약화됐다. 반면 '만년 2위'였던 두산 베어스

는 최강의 공격력이 견재한 가운데 203cm의 장신 외국인 투수 더스틴 니퍼트와 일본에서 복귀한 이해찬이 마운드에 가세해 투수력이 한층 강화됐다. 2009년 우승팀인 KIA 타이거즈는 윤석민-아킬레스 로페즈-트레이블 블랙클러키-양현종-서재응-김희걸로 이어지는 최강 선발 마운드를 구축해 SK, 두산과 함께 '빅3'로 평가되고 있다.

회박한 방망이를 앞세운 롯데 자이언츠와 '필승 마무리' 오승환이 부상에서 회복한 삼성 라이온즈, '용병 원투펀치'를 영입한 LG 트윈스는 '3중'으로 분류되지만, 상위 3팀과는 '중이 한 장' 차이 전력으로 혼전 양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뚜렷한 전력 보강이 없는 넥센 히어로즈와 류현진이 외롭게 버티는 한화 이글스는 하위권을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



“만날해도 무서워”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2010 태권도평화봉사단 해단식 및 후원의 밤'에서 태권도평화봉사단원들이 격파 시범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림픽같은 양궁 선발전 '여제' 윤옥희 탈락 쓴 잔

올림픽만큼이나 경쟁이 치열한 한국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올해는 세계를 호령하던 윤옥희(예천군청)가 희생자가 됐다. 대한양궁협회는 윤옥희가 1, 2차 평가전 성적을 합산한 결과 7위에 머물러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팀에서 탈락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윤옥희는 합숙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태릉선수촌을 떠났다. 윤옥희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단체전, 작년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인전과 단체전, 국제양궁연맹(FITA)의 양궁왕전인 월드컵파이널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여제'다. 대한양궁협회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많기에 언제든지 이변이 있을 수 있는 게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이라고 말했다. 문형철 예천군청 감독은 "윤옥희가 1차 평가전에서 경기가 안 풀리다가 보니 감각을 잃은 것 같다"며 "1차에 부진했고, 소심하다가 보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윤옥희는 "오는 10월에 열리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국가대표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궁협회는 올해 세계선수권대회가 끝나면 내년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을 기존 성적과 관계없이 원점에서 치른다. 여자부 1, 2차 평가전 1~6위는 정다소미(경희대), 한경희(전북도청),

기보배(광주시청), 주현정(현대모비스), 김문정(청원군청), 장혜진(LH)이 차지했다. 남자부에서는 오진혁(농수산흥소방), 김우진, 임동현(청주시청) 등 작년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리스트들이 나란히 1~3위를 차지했고 김성훈(한국체대), 김주완(대전체고), 이창환(두산중공업)이 그 뒤를 이었다. 협회는 이날 9일부터 태릉선수촌에서 3차 평가전을 열어 오는 7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남녀 대표 3명씩을 선발한다. /연합뉴스

김연아 29일 시즌 첫 연기

'피겨 여왕' 김연아(21·고려대)의 올 시즌 첫 연기가 29일(이하 한국시간) 저녁 모스크바에서 펼쳐진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이날 26일부터 모스크바 메가스포츠 아레나에서 열리는 2011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의 공식 일정표 1일 발표했다. 일정표에 따르면 김연아가 출전하는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은 29일 저녁 6시30분 시작한다. 김연아는 이날 발레곡인 '지젤'을 배경으로 한 새 쇼트프로그램을 처음 공개한다. 이어 30일 저녁 6시30분에는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이 시작된다. /연합뉴스

여민지 헤트트릭에 광주 운남고 3-7 대패

여왕기 여자축구 개막전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 월드컵 우승 주역인 공격수 여민지(합천대산고)가 제

19회 여왕기 전국 여자축구대회 개막전에서 헤트트릭을 작성하며 팀 승리에 앞장섰다.

여민지는 1일 충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광주 운남고와의 여자 고등

부 개막 경기에서 혼자 세 골을 넣어 7-3 대승을 이끌었다. 지난해 9월 FIFA U-17 여자 월드컵에서 최우수선수(MVP)에게 주는 골든볼과 골든슈(득점왕)를 차지했던 여민지가 여왕기에서 몰론 공격력을 과시하며 대회 득점왕을 향해 기분 좋게 출발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화측

▲김진근·오해숙씨 장남 종성군 이상선(광주여상 교장)·고재숙씨 차녀 지향양=2일(토) 오후 1시40분 광주상록대당홀 4층(장미홀).

부음

▲박원식씨 별세 회향(전남연하의원 원장)·준철(일간스포츠 이수·연예담당 에디터)씨 부친상=발인 3일(일) 오전 9시 순천 한국병원장례식장, 061-723-4444

▲모삼덕씨 별세 이동수·명수·중재·관화·관희씨 모친상 김선삼·박경진·김세종씨 빙모상=발인 3일(일) 무안종합병원장례식장, 061-453-0041

▲신영자씨 별세 이기범·종범·진범·인선·춘희·미선·스미씨 모친상=발인 2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김복금씨 별세 구영수·대림·용숙·자·희씨 모친상=발인 2일(토)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謹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弔

<p>故 이순례 님(여/49세)</p> <p>夫 : 염일환 子 : 염인선, 재선 • 호실401호 • 장자:영락공원 • 발인:4월 03일 • 연락처:227-1383</p>	<p>故 장정자 님(여/69세)</p> <p>子/녀: 김영민 / 김순희현우 / 박정화 女/婿 : 김지영 / 이영호 • 호실101호 • 장자:영락공원 • 발인:4월 02일 • 연락처:227-4385</p>
--	---

마음까지 편안 한
추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謹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弔

<p>故 양금례 님(여/67세)</p> <p>夫 : 김금동 子/녀: 김우남, 우영, 우영, 김지영/김성기 女/婿 : 문현숙/박종인, 여영이/홍영 • 발인:4월 2일 07:30분 • 장자:정동 용산 • 연락처:250-4411</p>	<p>故 문삼순 님(여/66세)</p> <p>子/녀: 김영식 女/婿: 김순희/정성기, 순영/양수근, 말순/박상근 • 발인:4월 2일 08:30분 • 장자:담양 수복 • 연락처:250-4412</p>
<p>故 이동영 님(여/90세)</p> <p>子/녀: 김정남, 정광선, 광복, 광훈, 광욱 女/婿: 문현숙/박종인, 여영이/홍영 • 발인:4월 2일 00:00분 • 장자:망월동 • 연락처:250-4406</p>	<p>故 심중택 님(남/75세)</p> <p>子/녀: 심상화, 심돈 女/婿: 심경옥, 심미/윤근상 • 발인:4월 2일 08:10분 • 장자:영락공원 • 연락처:250-4403</p>
<p>故 문관 님(남/73세)</p> <p>子/녀: 문윤성/이은아, 상준/최혜영 女/婿: 문현숙/박종인, 여영이/홍영 • 발인:4월 2일 10:00분 • 장자:정동 용산 • 연락처:250-4409</p>	<p>故 배영환 님(남/98세)</p> <p>子/녀: 배영희/김영희, 정영/배복남, 주영/김순자 女/婿: 문현숙/박종인, 여영이/홍영 • 발인:4월 2일 08:30분 • 장자:담양 용산 • 연락처:250-4413</p>
<p>故 김봉림 님(여/74세)</p> <p>子/녀: 이봉일/손현미, 봉복/주영희, 봉남 女/婿: 이현자/류정연, 순자/이종순, 유순/이종욱, 순복/김영호, 순영/정대영 • 발인:4월 2일 08:00분 • 장자:계남리 • 연락처:250-4404</p>	<p>故 신태모 님(남/75세)</p> <p>子/녀: 신순균/재종인, 원균 女/婿: 신순경/김경림, 홍정/정영복, 숙정/윤정 • 발인:4월 2일 08:00분 • 장자:담양 용산 • 연락처:250-4404</p>

그린장례식장 24시간대기 (062)250-4455